진각종, 울릉도서 '평화' 노래하다

7월 22일, '독도아리랑 콘서트'
주민 · 관광객 1500명 축제 즐겨
울릉도 대표 문화축제 자리매김
21일 '진호국가 무진서원불사'도


진각종은 7월 22일 울릉도 저동항 특설무대에서 제23회 회당문화축제 메인 행사인 '독도아리랑 콘서트'를 개최했다.

울릉도=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국민 화합과 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는 문화예술 축제가 성황리에 펼쳐졌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7월 22일 울릉도 저동항 특설무대에서 제23회 회당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독도아리랑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국악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함께 즐기며 한여름 울릉도의 밤을 즐겼다.

올해 공연은 '아름다운 이곳은 우리 땅, 섬마을 울릉도', '울릉 비나리', '울릉 그리고 아리랑', '어울림' 등 네 가지 주제로 꾸며졌다. 울릉도아리랑보존회와 지역 어린이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예인집단 아재의 전통 줄타기, 국악밴드 거꾸로프로젝트의 무대, 청년 자원봉사단의 독도사랑 퍼포먼스, 밴드 노브레인의 공연이 이어지며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를 완성했다.

특히 올해는 울릉문학회와 함께 추진한 '울릉애가 프로젝트 2'가 처음 공개됐다. 울릉도 문학인들의 작품에 곡을 붙인 신민요 3곡을 처음 선보였으며, 이들 작품은 오는 8월 음원으로 제작돼 울릉문화원에 헌정될 예정이다. 지역의 자연과 삶을 담은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존하는 회당문화축제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았다.

축제의 마지막은 청년 자원봉사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새롭게 구성한 '독도는 우리 땅' 퍼포먼스와 불꽃놀이가 장식하며 울릉도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 사동에서 태어난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을 기리고 독도아리랑을 통해 국민 화합과 나라의 안녕을 발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로 23회를 맞으며 울릉도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회당문화축제가 23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울릉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내년은 창종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더욱 알차고 신바람 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오겠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 모두의 소원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도영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호국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와 자연, 사람들의 이야기가 축제를 통해 국민의 기억 속에 오래 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회당문화축제가 지역을 대표하고 전 국민이 함께하는 불교계 대표 축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울릉도와 성북구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역 간 문화교류 확대에 기대를 나타냈다. 이 구청장은 "성북구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역사문화도시이자 8개 대학이 있는 청년의 도시이며, 진각종 총본산이 자리한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회당 대종사가 태어난 울릉도와 총본산이 있는 성북구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울릉군과 서울 성북구는 문화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와 진각종 총본산이 있는 성북구가 문화축제를 매개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 간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콘서트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회당의 발걸음을 따라'를 주제로 걷기명상 순례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총지심인당에서 선원심인당까지 걸으며 회당 대종사의 수행 정신을 되새기고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독도 특별방문도 예정됐지만 높은 파도로 여객선 접안이 어려워 입도는 아쉽게 무산됐다.

앞서 진각종은 7월 21일 울릉도 금강원 야외 특별행사장에서 '금강원 진호국가 무진서원불사'를 봉행하고 2027년 열릴 창종 80주년 기념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세계평화, 국태민안을 발원했다.

능원 정사는 "금강원 진호국가 무진서원불사는 진각종 고유의 의례를 축제로 승화시킨 장엄한 법회이자 울릉도와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평화를 서원하는 대작불사"라며 "묵호항을 떠나며 '진각여민락(眞覺與民樂) 불법위세평(佛法爲世平)'을 되새겼다. 누구나 참된 깨달음으로 편안하게 살아가고 불법이 흥왕해 세상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금강원에서 다시 세운 발심과 서원은 한량없는 공덕으로 회향돼 서울 성북구와 울릉도의 상생 교류를 더욱 굳건히 하는 인연이 될 것"이라며 "회당문화축제가 지역 종단이 함께 성장하는 축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총지심인당 주교 경일 정사는 회당 대종사가 열 살 때 지은 한시를 봉독하며 종조의 원력을 기렸으며, 종의회 의장 재당 정사는 종조법어를 봉독하며 금강법계와 유가삼밀의 가르침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정지심 탑주심인당 보살은 울릉군에 10kg 쌀 300포를 기증해 대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식후에는 교성곡 '회당' 가운데 '눈을 뜨라'를 국악밴드 거꾸로 프로젝트와 경기민요 박정미 소리꾼이 협연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봉사단원들이 준비한 '독도사랑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행사는 원만히 회향됐다.

금강원 금강정 복원 진리 샘물길 열려

진각종, 종조 탄생지 헌공불사
'금강수' 취수 위해 조성돼

"금강정의 금강수가 말법시대 중생들의 무명과 아집을 치유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법수로 전승되길 서원합니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이 종조 회당 대종사 출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에 오랜 샘물길을 복원해 금강정을 조성하고 심인 진리가 세상이 널리 퍼지길 발원했다.〈사진〉

금강정은 진각종 의례에서 사용되는 '금강수'를 취수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금강원은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이자 무진 서원이 깃든 심인진리의 근본도량으로, 이번 불사는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금강원을 순례하는 진각행자와 관광객 모두에게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감로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금강정 조성은 올해(진기 80년) 4월 29일 제417회 원의회에서 추진이 결정됐으며 5월 19일 제451회 임시종의회에서 확정 의결했다. 6월 8일 착공해 약 20일의 공사 기간을 거쳐 27일 완공됐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오랜 염원이었던 금강정 조성이 마무리된 데 대해 기쁨을 표하며 "앞으로 금강원 금강정의 금강수로 관정하는 모든 진각행자들이 언제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천만사를 당적할 수 있고 단청을 할 수 있을 만큼 평온한 마음으로 날마다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헌공불사 후 참석자들은 금강수를 한 모금씩 나누며 삼인진리의 법맥과 금강원의 역사 물길이 천년토록 이어지기를 함께 발원했다. 울릉도=임은호 기자



기자칼럼

누가 아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조계종이 오는 9월 3일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치른다.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스님은 없다. 8월 11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비로소 선거 구도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는 기대보다 선거가 어떤 모습으로 치러질지 우려하는 마음이 더 큰 것도 사실이다.

선거가 본격화될수록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정작 종단의 미래를 놓고 경쟁해야 할 종책 논의는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 불교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호감이 높아진 지금, 어렵게 쌓아 올린 긍정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다.

총무원장은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 행정 책임자이자 한국불교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다. 종단 운영 능력은 물론 사회와 소통하고 국민에게 불교의 가치를 전하며, 갈등을 조정하고 종단 구성원을 하나로 아우르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수행력과 행정력, 포교 역량, 대외 협력 능력과 포용력을 두루 갖춘 지도자가 요구되는 이유다.

지금 한국불교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출가자 급감과 승가의 지속가능성, 신도 감소에 따른 포교 혁신,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종단의 재정 자립, 전통문화의 계승과 사회적 역할 확대 등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다.

후보들은 자신의 종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종단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어떤 비전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 것인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선거인단 역시 계파나 인맥, 풍문이 아니라 후보가 제시하는 종책과 이를 실현할 역량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만큼은 사람보다 종책이, 비방보다 비전이, 갈등보다 화합이 우선되길 기대한다.

그것이 종단의 품격을 높이고, 어렵게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길이다.



김내영 편집국 차장

생명나눔·중신회, 장기기증 확산 '맞손'

7월 22일, 업무협약 체결
생명나눔 캠페인 등 추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 이하 생명나눔)와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나선다.

생명나눔과 중앙신도회는 7월 22일 생명나눔 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한국불교 발전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불교 발전과 생명나눔 문화의 범국민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불교계의 생명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중앙신도회 회원 대상 장기 기증 캠페인 추진 및 치료비 지원 △불교적 자비 사상에 기반한 연대 사업 등을 추진한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과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전달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다"며 "나 또한 간 이식을 받은 사람으로 환자의 마음을 알기에, 종교·인종과 관계없이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신회가 여러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생명나눔에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표했다.

이에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은 "전국 불자들이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 신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명살림 활동에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생명나눔 부이사장 선일 스님·이사 법륜 스님을 비롯한 생명나눔 이사들과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중앙신도회에서는 정원주 회장·김학규 수석부회장·임원진 등이 함께했다. 박지운 기자

명상아카데미 가을 학기 개강

명상지도자協, 1·2급 과정
1박2일 캠프 · 월례명상 진행

한국명상지도자협회(공동대표 마가 스님·정혜 스님·김열권·안희영, 이하 협회)가 명상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명상아카데미 가을 학기'를 온라인으로 개강한다.

2급 과정은 9월 2일, 1급 과정은 9월 5일부터 온라인(Zoom)으로 10주간 진행된다. 금강 스님의 '선명상과 화두수행' 강의를 시작으로 협회 소속 명상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검증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지도할 예정이다.

2급 과정은 9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협회에 소속된 스님들과 단체의 명상법을 배울 수 있으며, 명상전문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1급 과정에서는 더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 중심 강의가 진행된다. 명상전문지도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강사 구성은 2급 과정 종강 시 강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20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두 과정 모두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전체 강의를 100% 수강해야 한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에 불참한 경우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녹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단 녹화 강의 수강 시에는 간단한 소감문을 과제로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1·2급 과정 중 8·10월에 진행되는 1박 2일 오프라인 수련캠프에 1회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참가비는 35만원. 02-953-5307 박지운 기자